

세계 신화로서의 **제주 신화 가능성 연구**
- 아틀란티스 신화를 중심으로

2022. 12. 27

Daejin University 최 원혁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말 -제주신화에 대한 제주의 정책적 지원



신비의 섬 제주를 습격한 악귀 '정염귀'에 대적하기 위해 수천의 세월을 견뎌온 '반'을 비롯 운명의 중심에 선 '미호', 지상 최고의 최연소 구마사제 '요한'이 냉혹한 인과율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 나섬.
총 제작비 200억원 이상.



22년에 걸친 역사(役事). 면적이 자그마치 97만㎡.(약30만평) 총사업비는 1855억원(국비 905억원, 지방비 950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공원 전체가 설문대할망을 핵심주제로 삼아 펼쳐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제주 외자 유치상 최고 기록 (15억달러, 약 1조7000억원)을 경신한 제주신화월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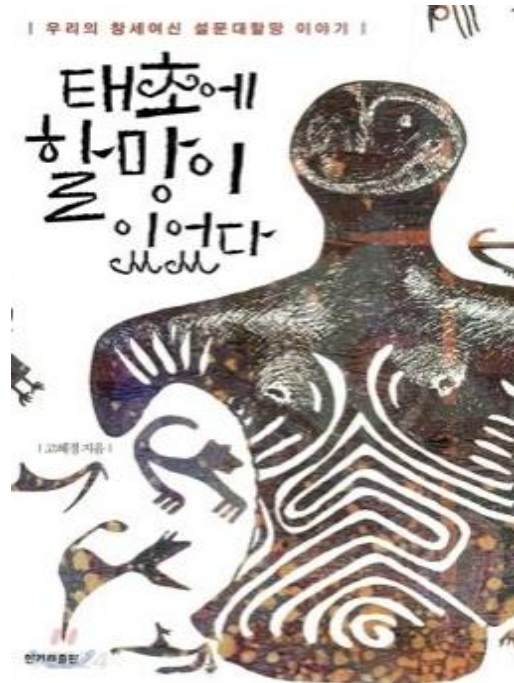
1. 들어가는말 - 제주신화의 세계성



JRI 제주학연구원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는
『성서』와 『포폴 부』 신화와
공통점이 있다.

신연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연우 교수



제주신화의 대표격인 설문대할망
신화는 세계적으로 드문 위대한 여성
신화원형임을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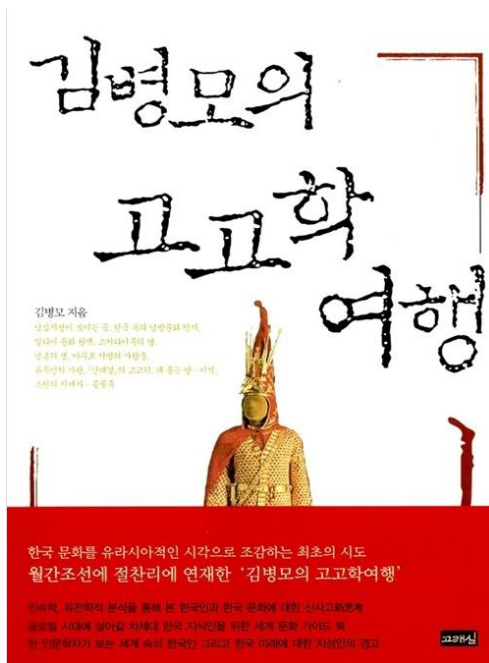
고혜경, <신화와 꿈 아카데미> 원장



차사본풀이·천지왕본풀이에 작가
상상력 더해 새로 재탄생

주호민, 신과함께 원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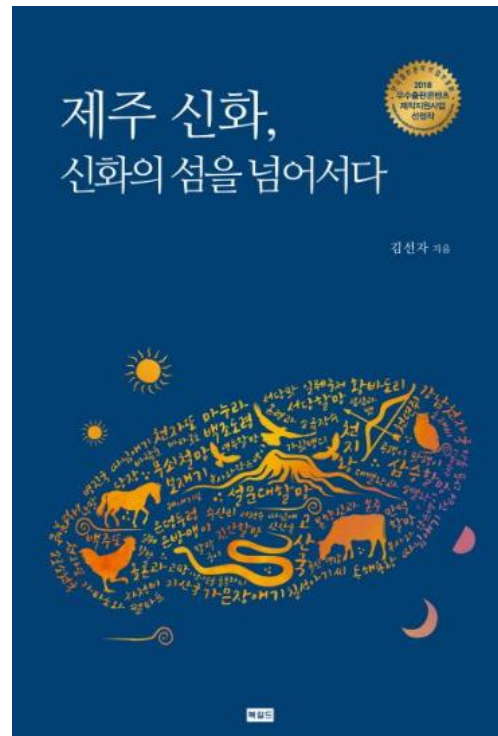
1. 들어가는말 - 순다랜드 이전의 연구



돌하루방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베사키 사원 석상이 그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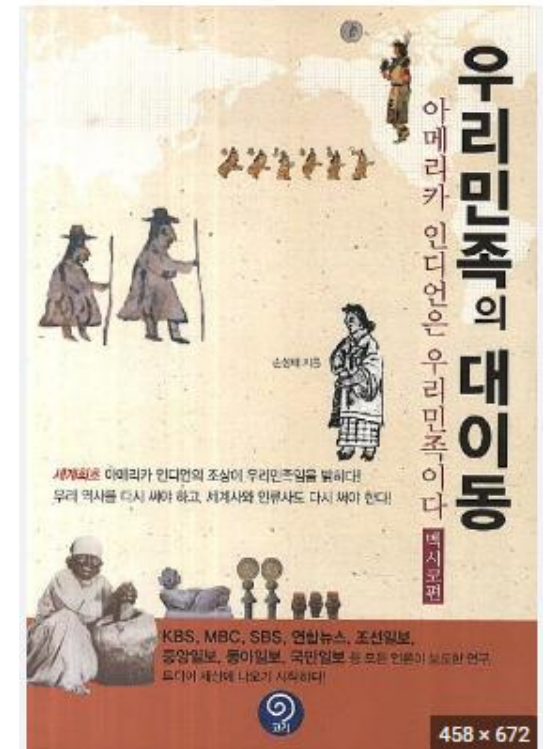
‘페루(잉카 문명) →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 → 인도네시아 발리 섬(베사키
사원 석상) → 필리핀 → 제주도
돌하루방.’

신동아, 맹성렬, 2013.9



원래부터 제주는 대륙과 해양의
신화적 요소가 만나는 땅이었고,
그래서 신화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제주
신화는 ‘하이브리드’이며, 그것은 제주
신화가 제주라는 ‘섬’에서 벗어나
세계와 만나는 접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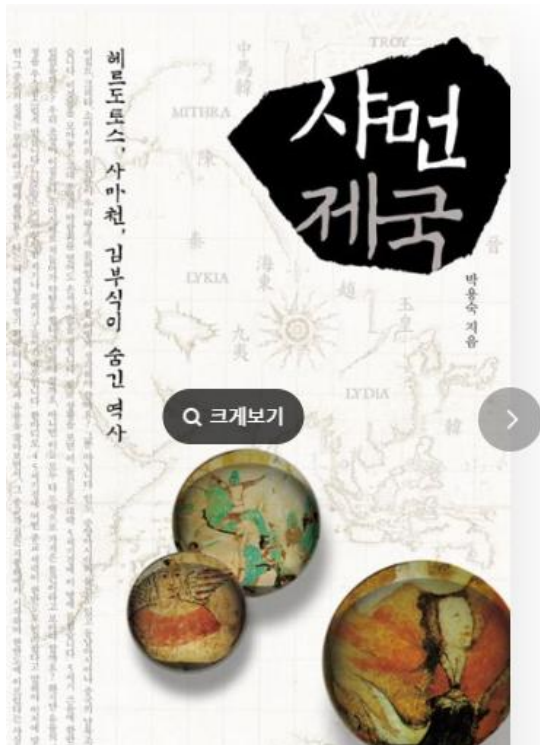
김선자, 신화학자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어인
‘나와들어(語)’와 우리말의
‘고어(古語)’ 사이에 어순과 발음,
문장의 구조적, 형태론적인 면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태, 배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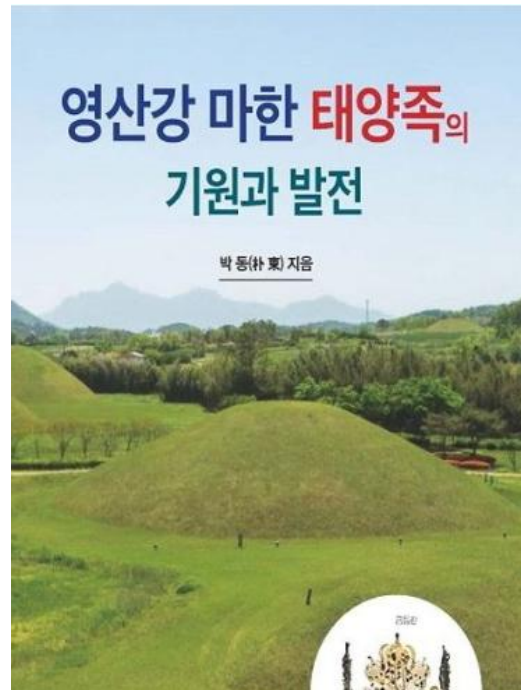
I. 들어가는말 - 순다랜드 이전의 연구



돌하루방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베사키 사원 석상이 그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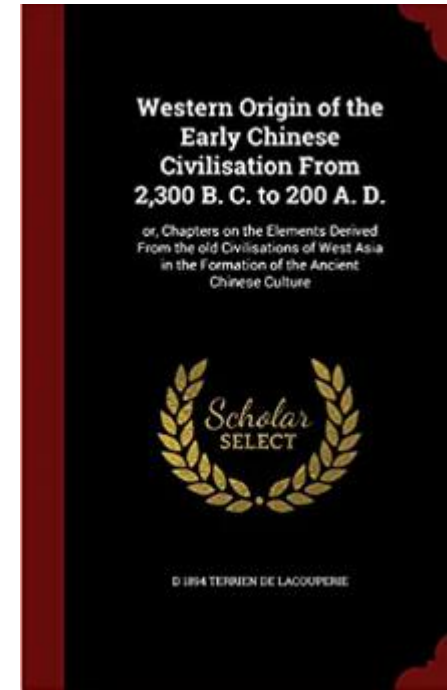
‘페루(잉카 문명) →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 → 인도네시아 발리 섬(베사키
사원 석상) → 필리핀 → 제주도
돌하루방.’

신동아, 맹성렬, 2013.9



원래부터 제주는 대륙과 해양의
신화적 요소가 만나는 땅이었고,
그래서 신화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제주
신화는 ‘하이브리드’이며, 그것은 제주
신화가 제주라는 ‘섬’에서 벗어나
세계와 만나는 접점이 된다.

김선자, 신화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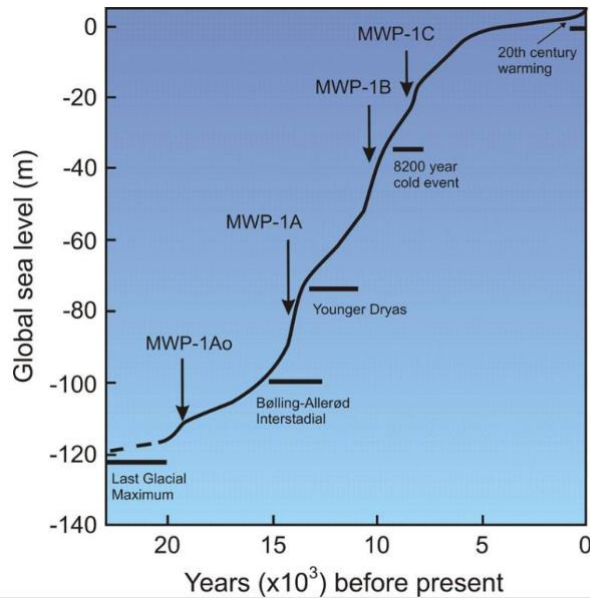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sation From 2,300 B.
C. to 200 A. D.**

손성태, 배재대 교수,

I . 들어가는말 – 순다랜드



Dino Mozardien
Bandung, Indonesia



"순달랜드"라는 이름은 1949년에 반 펌멜렌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어 카틸리(1975), 해밀턴(1979), 허치슨(1989)이 유라시아 판의 남부를 형성하는 동남아시아의 대륙핵을 묘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Dhani Irwanto, 2015

I. 들어가는말 - 순다랜드 이후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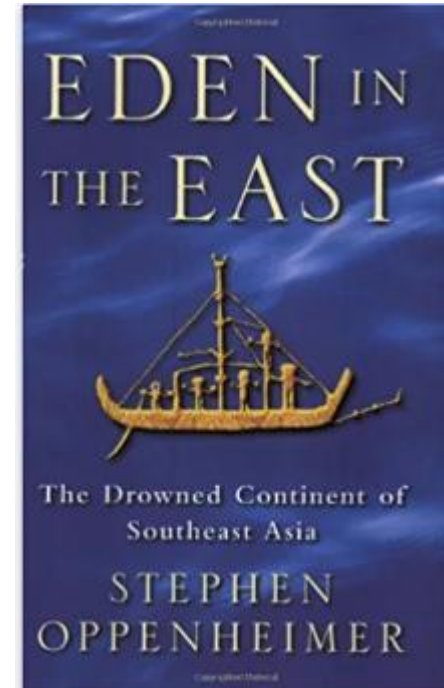


KBS파노라마 - 코리안이브 2편,
비밀의 열쇠 순다랜드 / KBS
20140912 방송



“역사시대 이전에 과학문명 존재...
고대 이집트·메소포타미아 문명
동남아의 ‘순다랜드’에서 비롯돼
순다랜드인이 정착한 남미의 고원...
‘신들의 고향’ 에덴동산 된 것”

맹성렬, 우석대 교수(전기전자공학)



1만여년 전 에덴동산이 동남아시아의
순다열도에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책
『동쪽의 에덴』이라는 책을 내놓아
학계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스티븐 오펜하이머, 동쪽의 에덴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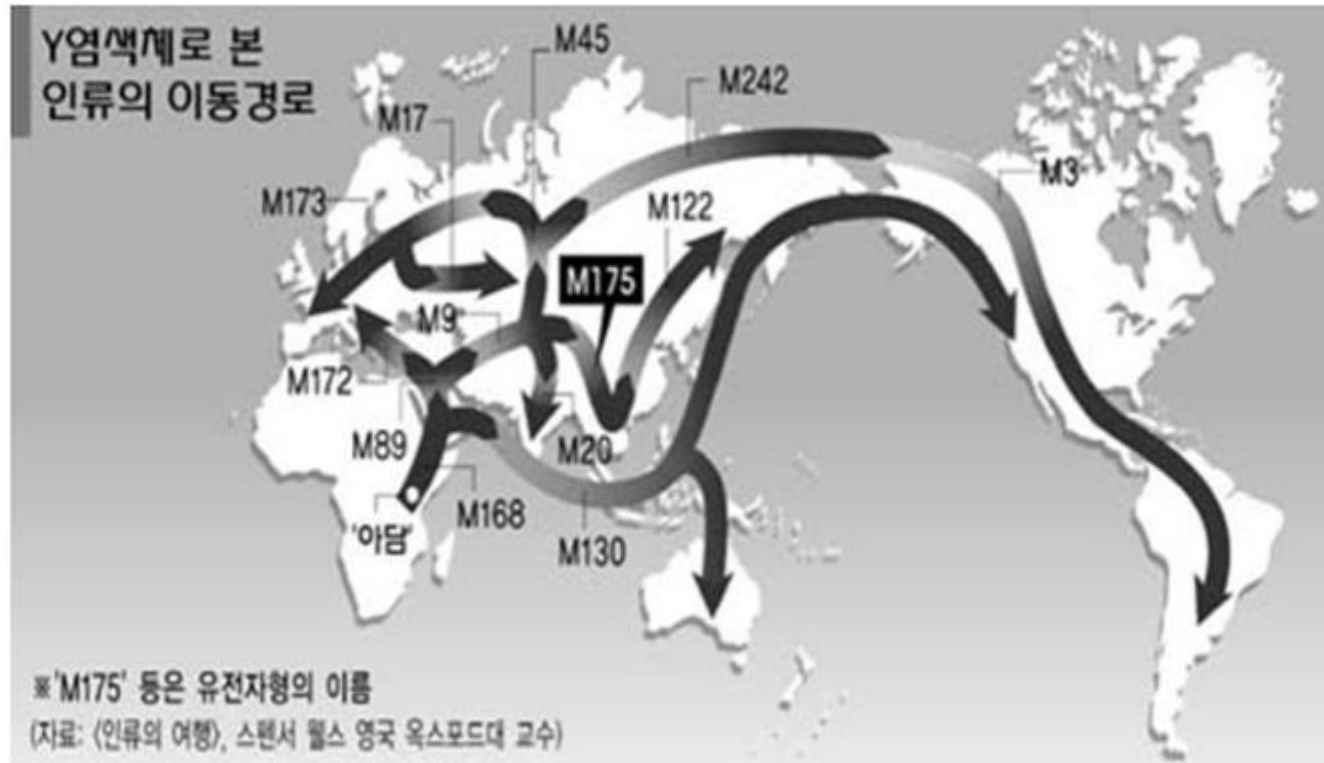


KBS 파노라마
코리안 이브



가덕도 유골서 7천년전 '유럽형 유전자' 발견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KBS 파노라마 코리안 이브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기후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드리아스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 ScienceTimes

갑작스런 기후변화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실제 '영거 드리아스'(Younger Dryas stadial) 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드리아스기는 3기로 나눈다. 오래된 순서로부터
최고기(BC 14000 ~ BC 10400),
고기(BC 10000 ~ BC 9800),
신기(BC 9000 ~ BC 8200) : 영거 드리아스

등이다. 최고기와 고기에는 여름 기온이 약 섭씨 8~9도일 정도로 한랭하고, 신기부터는 섭씨 11도 이상으로 온난해진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5000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지역에서 발견
샘플 조사 결과
9000~2만 년 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5.4.3 KBS 뉴스광장



카랄의 원형 광장 유적지(출처: <http://www.perubuddy.com>)

고대 후기(Arcaico Tardío 기원전 3000-1500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문명의 흔적이 안데스 최초의 카랄 유적지다. 카랄의 규모는 0.66km 정도로, 삼천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했다고 본다.

Ruth Shady가 카랄에서 약 오천 년 이상 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 및 기타 주거지 유적이 있는 전형적인 도시를 발굴하게 되었다. 피라미드 또한 대형으로, 면적이 축구장 네 개 정도의 크기, 높이는 1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이 피라미드가 건설될 즈음 이집트에도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덤이라면, 카랄의 피라미드는 신전이자 도시의 상징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점은 라틴아메리카 피라미드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강성식, 서울대강사)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 제주 돌하르방, 볼리비아 티와나쿠 석상, 칠레 서쪽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인도네시아 발리 베사키사원 석상
- 술라웨시군도 셀레베스섬 석상
- 바닷길로 2만5000km나 떨어진 곳의 석상들이 이상하게 닮아 있다.
- 시카고대 로버트 쇼크 1만년전 주장

• 기원전 1만5000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고, 기원전 9300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고고천문학자 닐 스티데는 기원전 1만년이라고 주장했다. 네발리 코리의 신전은 티와나쿠 석상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계 판단

와나코 유적 연구에 평생을 바친 오스트리아 태생의 고고학자 아르투르 포스난스키(라파스대 학 교수) 1만 5000년 전에 건설되어 1만1000년경 자연의 대변동으로 멸망했다 주장

'엘 프레일레'라고 불리는 이 돌 조각상은 제주 돌하르방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눈에는 고글을 쓴 것 같은 모습이였다. 잉카는 티와나코를 선대문명, 다시 말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맹성렬(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신동아, 2013)



터키 네발리 코리 돌기둥 석상(위), 볼리비아 티와나쿠 석상 조각



1 볼리비아 티와나쿠의 엘 프레일레 2 제주도 돌하르방 3 4 발리 석상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요나구니지마 해저유적 (与那国島海底遺跡)

Yonaguni underwater monument

현재는 기원전 8000년 정도의 인공 유적이라는 설과 자연적인 조수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이라는 설이 맞서고 있다



제주 고산리 토기

1990년대 초반 이곳에서 돌을무늬(용기문) 토기가 한 점 나왔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BC 8000년 전으로 올라갔다. 약 1만년 전에 조상님이 쓰던 그릇이지만 이 고산리 토기의 상단 문양, 그러니까 가로로 쳐진 세 개의 줄무늬는 신라 토기에도 등장했다. 팔수록 수수께끼가 나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 고산리가 그렇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군산서부 해역은 최저 46m에서 최고 92m의 수심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수심은 약 78m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해저지형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조류방향과 동일하게 발달한 사퇴(sand ridge)가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심 70m 해저에서 모래톱이 아주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및 남해는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345,000km²

황해는 수심 80m 미만의 얕은 바다로 전역이 대륙붕에 속해 있다

대륙붕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해역은 북해를 포함한 영국 주변 지역,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주변의 남지나해·자바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섬 사이의 아라푸라해(Arapura Sea), 서해와 동지나 해역, 베링해의 동반부 지역,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해안 지역, 북극해의 유라시아대륙 연변부 지역들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륙붕(大陸棚))]

국립해양조사원, 서해 대륙붕 해저지형 비밀 밝히다. 2016.1.18



12000년전~8000년전까지 해수면



5000년전~현재까지 해수면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사마 천(司馬 遷) /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州。此三神山者，其傳在渤海中，去人不遠，患且至，則船風引而去。蓋嘗有至者，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其物禽獸盡白而黃金銀爲宮闕。未至望之如雲，及到三神山反居水下。臨之風輒引去，終莫能至云。世主莫不甘心焉。及至秦始皇并天下，至海上，則方士言之不可勝數。始皇自以爲至海上而恐不及矣，使人乃齋童男女入海求之。船交海中，皆以風爲解，曰未能至，望見之焉。其明年，始皇復游海上，至琅邪，過恒山，從上黨歸。後三年，游碣石，考人海方士，從上郡歸。後五年，始皇南至湘山，遂登會稽，並海上，冀遇海中三神山之奇藥。不得，還至沙丘崩。

제나라의 위왕과 선왕, 연나라의 소왕(昭王) 이래로 사람을 바다로 파견하여 봉래, 방장, 영주(蓬萊, 方丈, 瀛洲)를 찾도록 하는 일이 잦아졌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삼신산(三神山)은 발해(渤海) 중에 있어 그 길이 멀지 않았으나, 선인(仙人)들은 배가 도착하는 것을 걱정하여 곧 바람을 일으켜 배를 멀리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십주기(十州記)에서 기록한 "물살이 크고 거칠며 무서운 파도가 친다."한 것과 일치한다.

발해는 원래 '빨발'을 뜻하는 싯담어이다. 동국정운에 기록한 발(渤)자의 정확한 발음은 '빨'이다. 즉, 갯빨을 말한다. 또한 싯담어 사전에는 대평원의 뜻도 있다.



〈그림 3〉 중국 사서(史書)에서 발해 동쪽에 있다고 한 삼신산. 하늘에 천제 지내던 감비고차(강화도)가 방장이었고, 오름이 많은 제주도가 영주였고, 한반도가 마고지나(麻姑之那)였다. 마고지나는 마고의 나라라는 뜻이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고부양

우규일, 「耽羅建國의 主人公-三姓穴 三神人の 正體, 日本國(碧浪國) 三公主와의 만남」, 한중친 선협회 중국서북문화국제논단 발표자료, 2009, 한중친 선협회 중국서북문화국제논단 발표자료, 2009



<그림 1> 산둥반도와 중국 동해안의 지형 변화(기원전(BC) 5500-BC 1300). 황색은 후에 간척지. BC 5500년경 산둥 반도가 2개의 섬으로 돼 있다가 BC 1300년경 연륙이 끝나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현재(완신세完新世)의 지형이 됐다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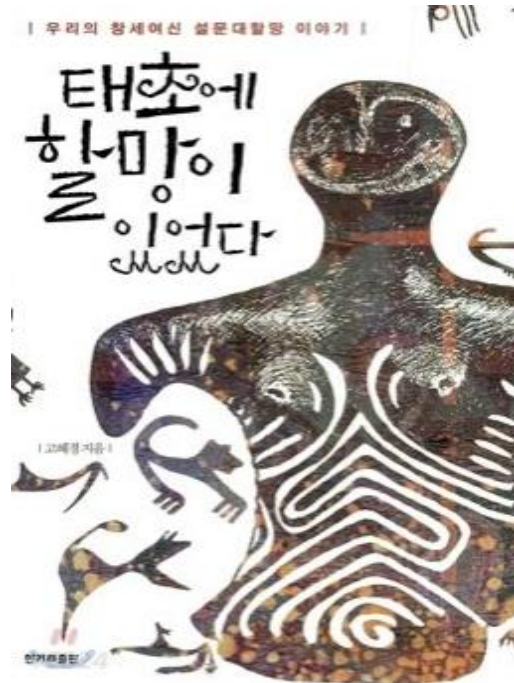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는
『성서』와 『포폴 부』 신화와
공통점이 있다.

신연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연우 교수



제주신화의 대표격인 설문대할망
신화는 세계적으로 드문 위대한 여성
신화원형임을 주목했다

고혜경, <신화와 꿈 아카데미> 원장



차사본풀이·천지왕본풀이에 작가
상상력 더해 새로 재탄생

주호민, 신과 함께 원작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조선 영조 47년, 1771년에 제주도 선비였던 장한철(張漢喆)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태풍을 만나 류큐 왕국(오키나와)으로 표류해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

설문대할망 관련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한철의 『표해록』 -국립제주박물관

或起拜向漢拏而祝曰 白鹿叵子活我活我
 詵麻叵婆活我活我
 蓋耽羅之人諺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
 又傳邃古之初有詵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

[혹은 (상인들 중 일부가)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이르기를 “백록선자께서는 (저희들을)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께서는 (저희들을) 살려줍서, 살려줍서!”라 축원한다. 대저 탐라인의 옛말에 선옹이 백록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 아득한 옛날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 한다.]

-1771년 정월 초닷새

하나는 ‘詵麻叵婆(선마선파) 곧 詵麻姑(선마고)’이다. 그러니까, ‘선마(고)’와 ‘선문(대할망)’은 외형상 비슷한 글자이니 양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선문대’는 ‘설문대’의 이형(異形)이다.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이다, 그러니까, 선마고가 키가 한라산만한 설문대할망이 아니라면 서해를 침범침범 걸어 건너올 수는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유라시아 원시언어 발생 지역〉



BC 7만년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의 영역〉



BC 1.2만년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BC 0.23만년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 1)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오른손에는 창의 종류인 트라이던트, 왼손에는 돌고래를 잡고 있는데, 그는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의 아들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세계를 분할 통치하고 있었다.
- 2)제우스는 대지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포세이돈은 해양의 지배권을 가진 신이었는데, 그리스의 신들은 포세이돈에게 아틀란티스 섬을 지배하도록 했다.
- 3) 섬의 평야 지역에 있는 언덕에는 대지에서 태어난 한 쌍의 인간 부부와 그 외동딸인 크레이토우가 있었는데, 부부가 죽은 다음 그 딸에게 정욕을 느낀 포세이돈은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다.
- 4) 포세이돈은 언덕 주위의 대지를 부수어 바닷물을 끌어 들였고, 그 결과 섬의 중앙부를 축으로 하여 둥근 모양의 육지가 이중으로 둘러싸는 형상이 되었다.
- 5) 당시 사람들은 배나 항해술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중앙에 있는 크레이토우의 주거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이 땅에 포세이돈은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는 두 개의 샘을 파고 대지에는 모든 종류의 작물이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했는데, 이곳은 나중에 중앙섬이라 불리며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 6) 이곳에서 포세이돈과 인간의 딸은 다섯 쌍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아틀란티스 섬을 10등분해서 아들들을 각각의 왕으로 삼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왕 중의 왕이 되었다.
- 7) 그 아들 이름이 아틀라스(Atlas)이었기에 이 섬이 아틀란티스라 불리게 되었는데, 아틀라스 일족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반드시 가장 연장자가 왕권을 물려받았으며 몇 대에 걸쳐서 변영이 계속되었고, 다른 왕국도 마찬가지로 변영했지만 이들 왕국 사이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으며, 항상 이 규율을 준수했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8) 그 규율이란 아틀란티스 내부에서의 싸움은 엄하게 금하며, 만일 어느 왕국에선가 왕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나면 각 왕국의 왕은 서로 힘을 합해 이에 맞서 싸우며 아틀라스 일가의 지휘를 따른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왕 중의 왕이라 하더라도 열 명의 왕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형제 왕 누구라도 그를 처벌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

9) 포세이돈의 열 명 왕의 자손들은 서로 결속해서 국토의 정비와 개발에 노력했는데, 우선 시조의 거처였던 중앙섬을 둘러싼 해로에 다리를 놓았고, 요소에는 터널을 뚫으며 신전을 만들었으며, 커다란 배로도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운하를 종횡으로 만들고 운하 입구에는 도크도 설비했다.

10)여러 개의 신전들 중에서 특히 호화롭고 웅장했던 것은 포세이돈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 가로 약 180미터, 세로 약 90미터의 거대한 건축물로서 외장은 모두 은판, 지붕은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내부의 천장은 모두 상아로 되어 있었으며 금이나 은, 황동, 백금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1)이 신전에는 많은 황금상들이 놓여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전차 위에 서서 여섯 마리의 천마를 달리는 포세이돈 상이었고, 신전 주위에는 역대 왕들의 황금상이나 시민들이 봉납한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헌상한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12)이 중앙섬을 둘러싼 둥근 모양의 육지에도 그 용도에 따라 전차 경기장이나 근위대 병사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었고, 가장 바깥쪽에는 일반 가옥들이 뺄뺄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항구는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온 무역 상인들이나 선원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다.

13)플라톤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이 섬 남쪽에는 광대한 대륙이 있었는데, 그곳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푸른 풀들이 자라는 너른 평야였으며, 왕국은 이 땅에도 바둑판처럼 질서 정연하게 운하를 만들었다.

14) 평야는 동서가 533킬로미터, 남북으로는 355킬로미터의 직사각형으로 주위를 폭 180미터의 대운하가 둘러싸고 있었고, 동서남북을 횡단하는 몇십 개의 수로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수로를 이용해서 목재나 작물을 운반했던 것이인데, 이 평야에서는 운하 덕분에 한 해에 두 번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한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15) 아틀란티스의 평야 부분은 6만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남성 지도자가 각각 한 명씩 선발되어 군사 체제도 이 지도자의 지휘로 제각기 조직되었다.

16) 전차는 여섯 지역에 한 대, 각 지역에 전차용 말 두 마리, 기수 두 명, 기병과 주자 각 한 명, 중무장한 보병 궁수 · 투석병 각 두 명, 가벼운 장비의 투석병 · 투창병 각 세 명, 그리고 1,200척이나 되는 선박의 승선원으로 네 명씩을 징병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으니, 대충 계산해보아도 육군 1백 만 명, 해군 24만 명이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17) 아틀란티스 왕국은 풍요로운 산물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교역도 활발하여 크게 발전했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낙원에도 점차 사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18) 플라톤은 그 이유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사치에 맛을 들여 부와 물질만을 추구한 결과, 그 신적인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19)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원래 신과 인간의 혼혈인데, 처음 몇 대 동안에는 그들 속에 신으로서의 성질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매우 고매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계속되면서 점차 인간의 성질이 강해지자 막대한 재산이 오히려 짐이 되어 사치에 빠져서 자제심을 잃고, 부를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 것이다.

20)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왕국이 아테네 침공을 꾀하였는데 아테네군의 과감한 반격으로 인해 패배해서 물러났다고 하며, 신이 그 힘을 아틀란티스 편에서 아테네 편으로 옮긴 결과라고 설명한다.

21) 또한 대지진과 홍수가 급습하여 아틀란티스는 민족과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다량의 토사가 바다 밑바닥에 쌓여서 지브롤터 해협은 그리스인들의 항해를 방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부도지

삼국사기(三國
史記)의 박제상
삼국유사(三國
遺事)의 김제상

징심록(澄心錄) - 15지(誌)			
구분	상교(上敎)	중교(中敎)	하교(下敎)
1	부도지(符都誌)	사해지(四海誌)	농상지(農桑誌)
2	음신지(音信誌)	계불지(袈裟誌)	도인지(陶人誌)
3	역시지(曆時誌)	물명지(物明誌)	?
4	천웅지(天雄誌)	가악지(歌樂誌)	?
5	성신지(星辰誌)	의약지(醫藥誌)	?

징심록은 3종류(상교,중교,하교) 15권의 지誌 로 구성
추가) 금척지, 징심록추기 = 모두 17권

신라시대 충신

김부식의 삼국사기
와 일연의 삼국유사
에 등장

망부석 이야기
유명

부도지 기록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							
궁희				소희			
황궁씨	청궁씨	천녀1	천녀2	백소씨	흑소씨	천녀3	천녀4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딸	딸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구분	실(實)	허(虛)
마고대성(麻姑大城)	실달지성(實達之城)	허달지성(虛達之城)
마고의 비행물체	지구(행성)	달(위성)

선천의 시기			
위치	상부(윗쪽)		하부(아랫쪽)
구분	마고대성	허달대성	실달대성
병렬	마고성이 허달성과 함께 실달성 위에서 병렬하였다.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성에 지유(地油)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고성의 변화
구분	이희(궁희와 소희)		지유가나옴에 따라서 이희가 사천인 사천녀 를 낳고 지유(地油)를 먹여서 길렀다.
생산(출산)	사천인(四天人)	사천녀(四天女)	
목적(임무)	집률-울을 맡다.	집려-려를 맡다.	

1. 제 1장 원문

麻姑城은 地上最高大城이니 奉守天符하여 繼承先天이다. 城中四方에 有四位天人이 提管調音하나, 長日 黃穹氏요, 次日 白巢氏요, 三日 靑穹氏요 四日 黑巢氏也라. 兩穹氏之母曰穹姬요 兩巢氏之母曰巢姬니, 二姬는 皆麻姑之女也라. 麻姑는 生於朕世하여 無喜怒之情하니, 先天爲男하고 後天爲女하여 無配而生二姬하고, 二姬도 亦受其精하여서 無配而生二天人二天女하니 合四天人四天女였다.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부도지

1. 麻姑城은 地上最高大城이니 奉守天符하여 繼承先天이다.
마고성 지상최고대성 봉수천부 계승선천
2. 城中四方에 有四位天人이 提管調音하니
성중사방 유사위천인 제관조음
3. 長曰 黃穹氏요, 次曰 白巢氏요, 三曰 靑穹氏요 四曰 黑巢氏也라.
장왈 황궁씨 차왈 백소씨 삼왈 청궁씨 사왈 흑소씨야
4. 兩穹氏之母曰穹姬요 兩巢氏之母曰巢姬니, 二姬는 皆麻姑之女也라.
양궁씨지모왈궁희 양소씨지모왈소희 이희 개마고지녀야
5. 麻姑는 生於朕世하여 無喜怒之情하니, 先天爲男하고 後天爲女하여 無配而生二姬하고,
마고 생어짐세 무희로지정 선천위남 후천위녀 무배이생이희
6. 二姬도 亦受其精하여서 無配而生二天人二天女하니 合四天人四天女였다.
이희 역수기정 무배이생이천인이천녀 합사천인사천녀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1. 아틀란티스의 존재 시기 ; BC 9,570년 ~BC 9,000년경
2. 멸망사유 ; 대지진과 대홍수
3. 위치 ; 지중해 밖의 거대한 대양에 위치한 대륙의 항만

임환영은 플라톤이 말하는 아틀란티스는 마고족이 이동해 간 아메리카에서 탄생한 새로운 빙하기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1,2,3의 사항을 보면, 빙하시대 말기로서 BC 9,000년경 후빙기가 시작되어 해수면이 140m가 상승하였으니, 아틀란티스는 분명 거대한 대륙붕이 잘 발달된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부근이나 동아시아 오키나와 부근이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스 로마 이전의 유럽은 지속적인 아메리카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근원은 이집트 사제가 Solon에게 전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친구인 Dropides에게 전해진 것이고, 다시 그 친구와 증손자인 Critias와 대화의 형태로 플라톤이 기록한 것인데, Critias는 플라톤 (Platon)의 증조 외조부이므로 플라톤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부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솔론은 그리스의 손꼽히는 정치가로서 결코 허튼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전할 인물이 아닌 것이고, 플라톤도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오늘날 까지도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대학자인데 허튼 소리를 지껄일 위인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플라톤의 그 유명한 이데아론은 아틀란티스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말의 아들이나 아틀란티스는 모두 북소토어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어 <물>도 북소토어 moela (stream)에서 유래한 것이고 한국어 중에서 어기야 어여차 등 물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말들은 모두 북소토어인 것이며, 아메리카 인디언어도 대부분 북소토어에서 유래하였다.

임환영 외에도 순다랜드와 제주도를 연결시킨 연구자들은 삼성혈신화도 재해석한다. 삼성혈 신화의 고,부,양은 홍수를 피해 높은 고지대인 제주도에 이동한 주변 민족으로 간주한다. 고, 부,양은 환인시대 문명이 건설되었다는 산동반도에서 가장 많은 성씨였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 할미를 비롯한 마고족은 예루살렘 (요새의 뜻)인 맹골군도 유역을 떠나 아메리카의 멕시코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다. <예루살렘 (Yerushalayim)>은 르완다어 yerurutsa (to hide) + <세소토어 sala + 르완다어 ima>로서, 살림살이를 감추다는 뜻으로서, 요새로 이루어진 <성(城)>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도지의 마고성 또한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도남부의 맹골군도는 바로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였다고 한다. 멕시코의 인디언은 북소토족으로서 마고의 후예이며, 세소토족인 켈트족은 후빙기에 북쪽인 오대호와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이때 남미일대에 세운 문명을 기존의 아틀란티스 이름을 붙여 만들어 이것이 아틀란티스 코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아틀란티스 남미설의 기원이 된다. 아틀란티스(Atlantis)는 북소토어 <atla (to prosper) + ntisa (to care)>로서, atla는 한국어 <아들>의 어원이며, 천도한 수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수메르 왕들의 목록>에서 BC 3,500년 <대홍수> 이전 역사를 모두 더하면 한반도에 세워진 설문대할망의 마고왕국의 기원인 BC 12,000년 산출된다고 한다.

세소토족이 켈트족이며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수메르 홍수이전 시대

도시	통치자	단위	기록연도	환산연도(년)	기간(년)	연도(BC)	시대
에리두	알룰림	8 sars	28,800	480	1080	11,200	마고시대
	알라가르	10 sars	36,000	600		10,120	
바드티비라	엔엔루 안나	12 sars	43,200	720	1200	8,920	황궁씨 시대
	엔멘갈 안나	8 sars	28,800	480			
	두무지	10 sars	36,000	600	1080	7,840	황궁씨 및 아틀란티스
라라크	엔-시파드-지드-아나	28800년	28,800	480			
시파르 슈트팍	엔-멘-두르-아나	21000년	21,000	350	660	7,180	황궁씨
	우바라-투투	18600년	18,600	310			
계			241,200	4,020			

Jack Finegan(1974)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화의 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옛날에 제주도에는 <천지창조한 여신> 수준의 할머니가 있었다.
- 2) 그 할머니는 치마폭에 <흙을 담아 수많은 오름들을 만들었고>, 한라산도 그중 하나였다.
- 3) 할머니는 <제주와 한반도 남해안을 연결>할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연결하려 하였다.
- 4) 그런데 할머니의 <요구조건은 명주1백통>이었고 백성들은 이를 <완납하지 못하였다>.
- 5) 결국, 할머니는 <육지 연결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설문대할망

- 1) 설문대할망은 천지창조한 여신이였다...이것은 마지막 빙하기의 바닷물이 빠져서 대륙붕이 물으로 드러난 시기의 여성족장이었음을 나타낸다.
- 2) 흙으로 많은 피라밋 토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서남해 대륙붕 대평원에 홍수가 주기적으로 범람하므로 살아남기 위하여 높은 토루를 만들어 거주하였고 평시에는 내려와서 농경이나 사냥을 한 것을 의미한다.
- 3) 제주도와 한반도 남단을 연결하려 하였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130m 낮아져서 제주도와 한반도가 연결되었는데, 다만 황하나 압록강 한강 등이 합쳐진 큰 강이 그 사이로 흐르고 있었으니 다리를 놓아야만 하였다...
- 4) 할망은 백성들에게 명주 1백통을 요구하였으나 99통만 받았다.. 그당시 화폐는 대표 상품인 삼베(마)였지만 훗날 역사시대에는 명주가 화폐로 대체되었고, 할망은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할망이 요구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은 반란 사건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할망은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나타낸다.
- 5) 할망은 육지연결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죽었다...이것은 후빙기에 이르러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넘쳐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수몰하였으며, 할망의 시대는 영원히 바닷물속에 사라짐 것을 의미한다.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존자암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제주 불교의 발원지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정은 홍유손의

「존자암개구유인문」에서 “존자라는 이름의 암자가 만들어진 것은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설 때였다.”라고 하는 문장과

『대장경』 범주기의 제6존자 발타라가 아라한과 함께 살았다는 탐몰라주(耽沒羅洲)를 제주도에 비정한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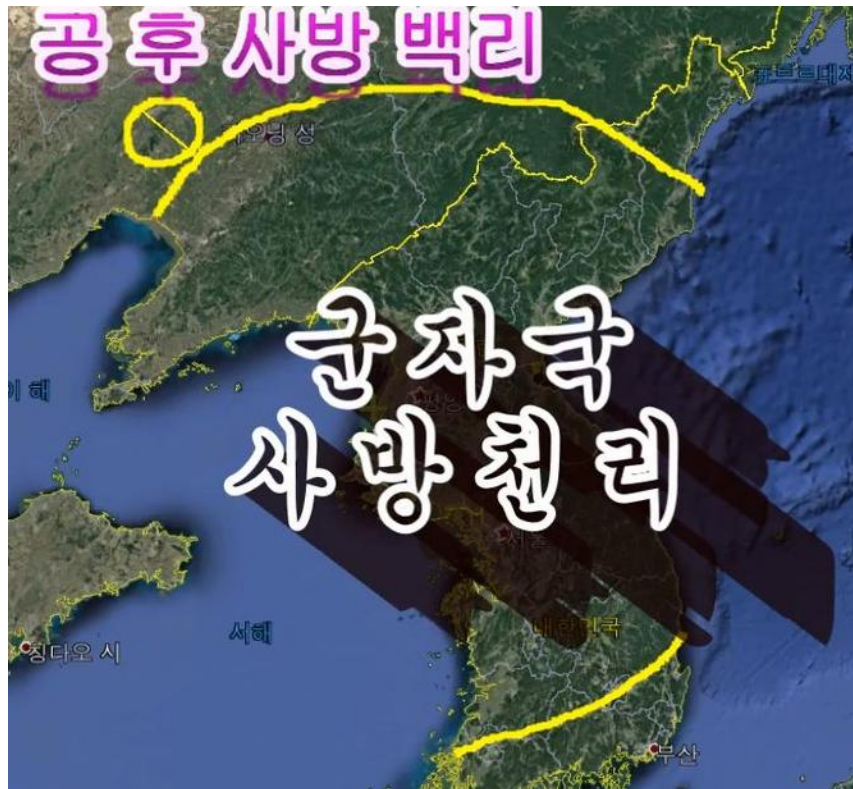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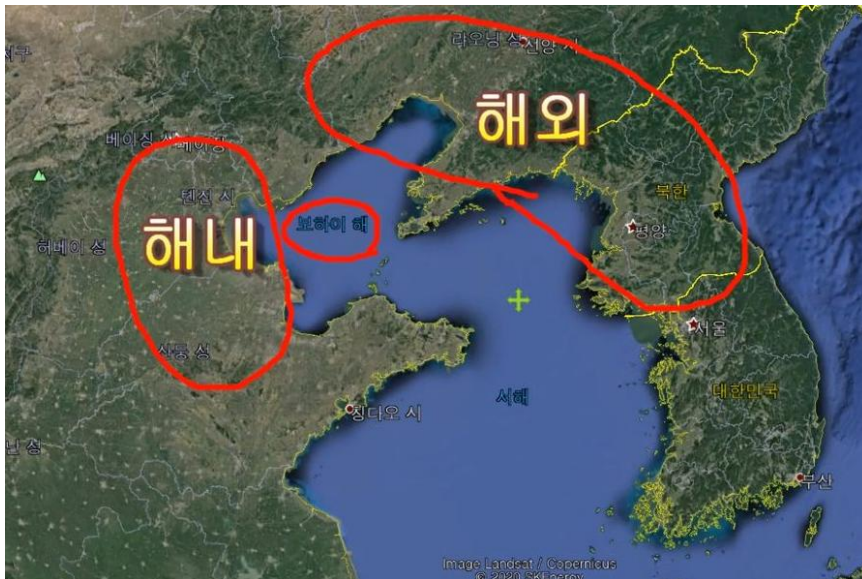
『관자管子』 〈소문小問〉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천리를 다스린다.
昔者天子中立 地方千里

『회남자』 〈지형훈隆形訓〉

동쪽에는 군자국이 있고,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대인국,
군자국, 흑치민, 현고민, 모민, 노민이 있다.
東方有君子之國 ... 自東南至東北方 有大人國
君子國 黑齒民 玄股民 毛民 勞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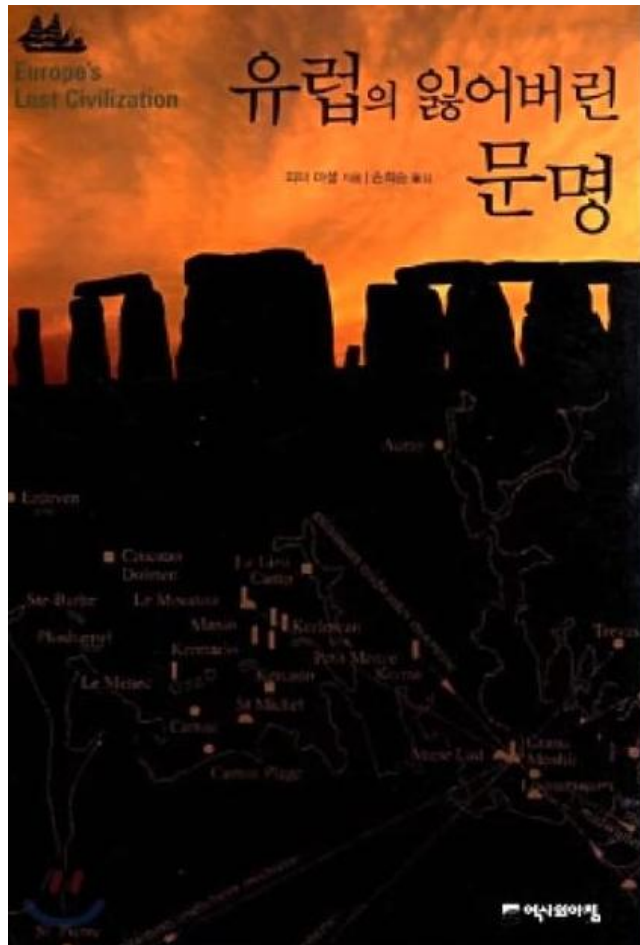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산해경山海經』 〈해외동경海外東經〉

해외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동북쪽 귀퉁이에 이르는 지역.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짐승을 먹고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부리며
결에 둔다. 그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海外自東南隅至東北隅者...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
食獸 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有薰華草 朝生夕死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기원전 9000년경 빙하시대가 끝나고
빙원이 물러날 무렵, 인류는 북유럽
탐험에 나섰다. 주로 바다를 통해 와서
강을 따라 탐험했다. 기원전 6500년경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30미터 이상 올라갔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유럽 대륙과 연결하던
땅이 잠겼다. 대서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해로 흘러 들어갔다.

-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35쪽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해양족 남색족의 이동



동이 - 산둥반도쪽 동이 = 남색족
만주동이 = 혼혈

산둥반도의 동이는 태평양 섬들에 사는
폴리네시아Polynesia 사람들의 특징 있음

**전 세계 고대문명이
비슷한 이유**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한서』〈율력지律曆志〉

창림은 창의를의 아들이다.

천하에서는 고양씨라 한다.

蒼林昌意之子也 ... 天下號曰高陽氏

창성할 창昌 = 푸른 나무들이 우거짐 = 남색 암시

황제 헌원은 원래 창제로 남색족
그 자식들 역시 남색족.

25명의 자식들 가운데

청양(=현효=소호)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남색족

『예문류취』〈염제신농씨〉

〈춘추명력서〉에 전하길 신인이 있어 석년이라 이름 지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옥리는 옥영과 같은데 신농씨이다)

《春秋命歷序》曰 有神人 名石年 蒼色大眉 戴玉理
(玉理 猶玉英 神農也)

듣기 제어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대대례기』 <오제덕>

공자왈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
창의의 아들이며 고양이다.
용을 타고 사해를 다녔고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 교지,
서쪽으로 유사, 동쪽으로 반목
孔子曰 顓頊黃帝之孫昌意之子也
曰高陽 ... 乘龍而至四海
北至於幽陵 南至於交趾
西濟於流沙 東至於蟠木

『삼국사기』 〈김유신열전金庾信列傳〉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호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 同姓也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사기의 족보

헌원 -(장남)소호금천(청양,현효)-교극-제곡고신-요

- 설契 은나라

- 직稷 주나라

- 신라 - 금 - 청

헌원 -(차남)창의-고양- ~ -고수-제순

- 곧 - 우 하나라

- 고구려, 백제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순임금이 중앙국 2대 제로 즉위했으나 장남 소호가문의 서쪽 고망국과 차남 창이가문의 아메리카 부락국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씨춘추呂氏春秋』 《사용론士容論》 <무대務大>에 순은 해외를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제위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했을 것이다.

옛날에 제순은 바다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를 이룬 것에 만족해야 했다.

昔有舜欲服海外而不成 既足以成帝矣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요임금 때의 대홍수로 인해 중앙국의 수도가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현원의 첫 도읍은 탁록이었는데 여기도 황해바다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요하문명의 하류에 있던 초기 군자국의 수도가 가라앉은 것이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본다. 『사기』 <봉선서封禪書>에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하니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이다.

(제나라)위왕·선왕·연나라 소왕 이래로 사람을 시켜 바다로 들어가서 봉래·방장·영주를 찾게 하였다. 이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전해지며
自威 宣 燕昭 使人入海求蓬萊 方丈 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통일한 전세계를 고망국, 중앙국, 부락국의 셋으로 나눠 통치했다고 『열자』 <주목왕>에 나온다. 고망국에 해당하는 서쪽 1만 2천리는 헌원의 장남이며 신라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이 다스렸다고 『회남자』 <시척훈>에 나온다. 동쪽 부락국은 헌원의 둘째 아들이며 전옥고 양의 부친인 창의가 다스린 것으로 보인다. <오제본기>에 좌우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했으며 또한 두 아들 모두 천하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중앙국 1만리는 헌원이 직접 다스리다 전옥에게 물려주었고 제곡고신, 요, 순임금까지 해서 <오제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오제본기>는 한족의 역사가 아닌 동이족의 중앙국 역사를 쓴 것이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西極之南隅有國焉(서극지남우유국언)

서쪽 끝의 남쪽 모퉁이에 한 나라가 있다.

不知境界之所接(부지경계지소접) 名古莽之國(명고망지국)

이 나라의 국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고망국**이라 한다.

陰陽之氣所不交(음양지기소불교) 故寒暑亡辨(고한서망변)

음양의 기운이 서로 교류되지 않으므로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없고,

日月之光所不照(일월지광소부조) 故晝夜亡辨(고주야망변)

햇빛과 달빛이 비치지 않으므로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

其民不食不衣而多眠(기민불식불의이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지만, 잠을 많이 잔다.

五旬一覺(오순일각)

50일 만에 한 번씩 깨어난다.

以夢中所爲者實(이몽중소위자실)

꿈에서 한 일을 사실이라 생각하고,

覺之所見者妄(각지소견자망)

깨어나서 눈으로 본 일을 다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四海之齊謂中央之國(사해지제위중앙지국)

또 사방의 거리가 똑 같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跨河南北(과하남북)

큰 강이 남쪽과 북쪽에 걸쳐 흐르고,

越岱東西(월대동서) 萬有余里(만유여리)

높은 산이 동쪽과 서쪽에 있어서 지방이 모두 만 여리에 이른다.

其陰陽之審度(기음양지심도) 故一寒一暑(고일한일서)

음양의 도수가 분명하므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

昏明之分察(훈명지분찰) 故一晝一夜(고일주일야)

암흑과 광명의 구별이 분명하므로 낮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하다.

其民有智有愚(기민유지유우)

그 나라 백성들은 지혜도 있고 어리석기도 하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萬物滋殖(만물자식) 才藝多方(재예다방)
온갖 물건이 번성한다. 재능도 여러 방면에 있다.
有君臣相臨(유군신상림) 禮法相持(예법상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기도 한다. 예의도 서로 차리고 법률도 서로 지킨다.
其所云爲(기소운위) 不可稱計(불가칭계)
그들이 말도 하고 일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一覺一寐(일각일매)
이 나라 백성들은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잠자고 있다.
以爲覺之所爲者實(이위각지소위자실) 夢之所見者妄(몽지소견자망)
낮에 깨어 하는일을 사실이라 하고, 꿈에 보는것을 다 허망한 것이라 한다.
東極之北隅有國(동극지북우유국), 曰阜落之國(일부락지국)
동쪽 끝의 북쪽 모퉁이에 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을 **부락국**이라 한다.
其土氣常燠(기토기상웁) 日月餘光之照(일월여광지조)
그 땅은 언제든지 따뜻하고 햇빛과 달빛이 언제든지 비취고 있다.
其土不生嘉苗(기토불생가묘)
그 땅에는 아름다운 곡식의 이삭도 나오지 않는다.
其民食草根木實(기민식초근목실)
그나라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열매만 먹고,
不知火食(부지화식)
불을 때서 밥을 해 먹을 줄 모른다.
性剛悍(성강한) 彊弱相藉(강약상자)
성질들이 강하고 사나워 약육강식을 한다.
貴勝而不尚義(귀승이불상의)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좋게 여기고 의리를 숭상하지 않는다.
多馳步(다치보) 少休息(소휴식)
흔히 분주히 뛰어 다니고 휴식이 적다.
常覺而不眠(상각이불면)
항상 깨어 있고 잠을 자지 않는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후한서』에도 평양은 요임금의 도읍이라고 나오니 무진년 평양에
도읍한 단군은 요임금일 가능성도 있다.

평양후국에 철이 난다. 요의 도읍지이다.

平陽侯國 有鐵 堯都此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V. 나가는말



물병을 든 아나히타



감사합니다